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산하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은 6월 17일 동국대 혜화관 고순청 세미나실에서 '근현대 비구니의 삶과 사상'을 주제로 제7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일엽 스님, 봉려관 스님을 비롯해 은영 스님, 인홍 스님, 대행 선사 등 근·현대 시기 한국 비구니계를 이끌었던 선지식들의 업적과 사상을 연구·조명한 논문들이 발표됐다. 이날 발표된 논문들을 정리했다.

정리=신성민 기자



6월 17일 동국대 고순청세미나실에서 '근현대 비구니의 삶과 사상'을 주제로 열린 대행선연구원 제7회 학술대회 개회식에서 사부대중이 삼귀의를 하고 있다.

# "대행선, 붓다 수행법 충실히 계승"

**윤종갑 동아대 초빙 교수**
**'대행선의 마음공부와 주인공 명상'**



대행 선사의 주인공 관법이 붓다가 계발한 독창적 수행법인 위빠사나를 계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종갑 동아대 초빙교수는 대행선이 사마타(止)보다는 붓다만의 독창적 수행법인 위빠사나(觀)에 가깝다고 봤다. 그에 따르면 붓다는 사마타 수행만으로는 완전한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독자적인 수행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위빠사나'다. 대행선은 위빠사나 수행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게 윤 교수의 주장이다.

윤 교수는 "대행 선사의 주인공 관법은 화두를 들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수행법이다. 생활이 그대로 참선이고, 삼라만상의 작용과 현상이 공안이며, 만물만생이 살고 있는 우주 법계 자체가 깨달음의 도량이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주인공 관법은 일상 속에서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면서 지켜보고 체험하는 위빠사나 수행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교수는 인지과학과 대행선의 접점도 모색했다. 그는 인지과학의 핵심이 "마음에 의해 몸이 인지화되고 몸에 의해 마음이 작동하는 것"임을 상기하며 대행 선사의 '한마음 주인공'과 맞닿는다고 봤다.

이에 대해 윤 교수는 "몸과 마음, 나와 세계에 대한 대행 선사의 과학적 설명은 인지과학의 쟁점과 동일한 것으로 불교의 핵심 교리를 현대적이고 과학적으로 풀어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행 선사는 몸과 마음, 환경의 합생에 의한 작용과 창조에 대해 전기발전소, 컴퓨터, 레이더망 등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면서 "대행 선사의 과학적 설명은 인지과학의 쟁점과 동일한 것으로 불교의 핵심 교리를 현대적이고 과학적으로 풀어냈다"고 강조했다.

# "봉려관, 근대 제주불교 중흥 이끈 선각자"

**봉려관문화연구원장 혜달 스님**
**'봉려관과 제주불교 지평의 확장'**



(사)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장 혜달 스님은 '봉려관과 제주불교 지평의 확장'을 통해 근대 제주불교 중흥을 이끈 선각자인 봉려관(1865~1938) 스님의 생애와 업적을 조명했다.

혜달 스님에 따르면 봉려관 스님은 1899년 처음 관음신앙을 가졌고, 1901년 관음신력을 확신해 1907년 스님이 된다. 봉려관 스님의 관음신앙에 대한 핍박이 있기도 했지만, 1909년 제주 관음사를 창건하며 제주불교 중흥을 이끌었다. 봉려관 스님은 수행중심사찰인 한라산 관음사와 산천단 포교도량인 소림사, 성내포교당 등 제주와 오사카에 사찰 16~17곳을 중·창건했다. 봉려관 스님이 이끈 불사로 인해 1925년 제주불교계는 중흥을 맡게 되다.

이 중 봉려관 스님이 창건한 법정사는 제주 항일운동의 기지가 됐고, 그 중심에는 봉려관이 있었다. 봉려관 스님은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 주동자인 강창규, 김연일, 방등화를 1913년 법정사로 이주시켰고, 군자금도 지원했다. 안광호는 이에 대해 "종 불사금을 걷어 종은 조그마하게 만들고 남은 돈은 모두 군자금으로 사용했다"고 구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혜달 스님은 "봉려관은 총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것을 제외하고 전부 다하신 분이고,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법정사 항일운동을 견인했다"면서 "봉려관의 항일자금 조달은 문헌은 없지만 구술은 존재한다. 비밀결사와 같은 항일운동을 감안하면 드러낼 수 없는 활동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봉려관은 자신이 처한 개인적 시대적 상황을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으로 봤다"면서 "그 어떤 근대 여성보다 진취적 행보를 보인 봉려관을 한국여성의 모범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선경 스님, '일상의 禪' 구현한 선지식

**여현 스님(동국대)**
**'담연당 선경의 선사상'**



여현 스님(동국대)은 '담연당 선경의 선사상'를 통해 선경 스님(1905~1996)의 삶과 수행을 살폈다.

여현 스님은 선경 스님의 생애를 유활문도회에서 발간한 문집 〈밑 없는 배(無底船)〉를 바탕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선경 스님은 1905년 5월 2일 충북 청원군 남원면 산송리의 소작농 집안에서 태어났다. 가난한 집안에서 출생해 일찍이 모친을 여의고 본인도 병에 걸려 고생하다가 생을 마치려 할 때 허공에서 '부처님과 지중한 인연'이라는 소리를 듣고 출가를 결심했다. 이후 선경 스님은 1922년 마곡사 영은암 명덕 스님에게 나아가 출가하고 이듬해 삭발했다. 은사인 명덕 스님은 선수행을 위해 많은 선원을 다녔고, 이에 따라 14년동안 인우 노스님을 선경 스님이 한결같이 시봉했다.

이후 선경 스님은 30살이 되어서야 선방을 다니며 참선수행을 할 수 있게 됐다. 수행의 열정은 만공 선사와의 인연으로 비롯됐다. 남들이 다 받는 화두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분심은 선경 스님을 수행에 매진하도록 했다. 선방에서 줄기차게 정진을 하다보니 언제부터인가 밥맛을 잃었고,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다. 선경 스님은 당시를 "잠을 잘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없는 급박한 마음이었다"고 술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여현 스님은 "선경 스님의 삶 자체가 일상에서의 선수행이었다"고 상찬했다. 스님은 "공양주 소임을 하면서도 반드시 큰방에 앉아 수행했고, 심지어 꿈에서도 수행의 모습이었다"면서 "노년에 쇠퇴한 노구로도 늘 화두를 옆에 써서 놔두고 끊임없이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후학들에게도 일상에서 화두를 놓치 말고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 생명·공, 일연 스님 선사상 핵심 요소

**김일엽문화재단 부이사장 경완 스님**
**'일엽 선사의 선사상 고찰'**



김일엽문화재단 부이사장 경완 스님은 '일엽 선사의 선사상 고찰'을 발표했다.

이날 경완 스님은 일엽 스님(1896~1971)의 만년 저작인 〈행복과 불행의 갈피에서〉를 분석하고 그 안에 내재된 스님의 선사상을 고찰했다.

경완 스님에 따르면 본래 출가 전 기독교를 믿었던 일엽 스님은 신앙에 대한 불신으로 무종교 상태로 지내다가 B씨를 만나 불교와의 인연을 맺게 된다. 그 시기에 일엽 스님은 월간지 〈불교〉 문예란을 담당했다.

이후 일엽 스님의 출가에 대한 생각은 만공 선사를 만나면서 굳어진다.

출가 이후 일엽 스님은 만공 선사의 지시에 따라 25년동안 절필하고 오로지 수행에만 매진했다. 다시 펜을 들고 난 이후에는 불교로 얻은 깨달음을 저서를 통해 회향했다.

만년 저작 〈행복과 불행의 갈피〉에서 일엽 스님은 대중에게 불교 수행을 권선한다. 그 권선에는 일엽 스님의 선사상의 키워드가 담겼다. 경완 스님이 꼽은 생명과 공이다. 이들 단어는 저작에서 308회 사용될 정도로 빈도가 높다.

경완 스님은 "저작의 서문을 생명선언으로 시작한다. 여기서 본연의 생명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생명의 작용이 생각이며, 생각이 삼라만상을 만드는데 그 본체가 생명이라는 것"이라며 "이렇게 보면 작용과 생각, 삼라만상은 연기법으로, 본연의 생명은 불성, 공을 달리 표현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엽 선사가 설명하는 공은 제일의(第一義)이며, 진리"라며 "일엽 스님은 익히 알려진 불교 경전을 들어서 개념을 해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깨달은 바를 자신의 언어로 설법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제3의 길' 모색 통해 비구니 종단 세우다

**전영숙 연세대 중국연구원 연구원**
**'은영스님 생애와 보문종 창종 의의'**



대한불교보문종은 세계 유일 비구니 종단으로 1972년 창종됐다. 보문종의 시작을 이끈 은영 스님을 조명하는 논문이 발표됐다.

전영숙 연세대 중국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비구니 은영 스님의 생애와 보문종 창종의 의의'를 통해 보문종 창종을 이끈 은영 스님의 생애를 조명했다.

전 연구원에 따르면 은영 스님은 1910년 1월 15일 충남 대덕군 북면 미호리에서 태어났으며 9세에 동학사에서 긍탄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은영 스님은 비구니 위상 강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대표적인 것이 전국비구니회의 전신인 우담바라회 초대 회장을 맡아 한국 비구니승가 발전을 이끈 것이다.

은영 스님이 보문종을 창종한 것도 한국 비구니승가의 발전을 위해 제3의 길을 모색함에 있었다. 전 연구원은 "현 보문사 비구니스님들의 증언에 의하면 은영 스님은 정화 당시 조계사 등 영향력 있는 비구스님들이 있는 곳에서 자주 대중공양을 올렸다. 하지만 그 과정에 비구스님들이 비구니스님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과 무시가 있었고, 은영 스님은 결국 비구도 대처도 아닌 제3의 길을 걷겠다고 결단을 내렸다"면서 "제3의 길은 보문종이라는 세계 유일의 비구니 종단을 세우는 데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연구원은 현재 보문종 종도 스님들이 선대 의지를 계승해 변화와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현재 보문사와 보문종의 활동은 최근 급격히 감소했다"라며 "그동안 동진출가자 중심으로 인력이 구성돼 높은 결속력을 보인 보문종이지만, 이제는 시대 변화에 순응해 혁신과 변화를 이뤄야 한다"고 충고했다.

# "계율·정진한 비구니 수행자 모델"

**일중 스님(동국대 강사)**
**'가지산 석남사 인홍 스님의 삶과 사상'**



"인홍 스님은 봉암사 결사 정신을 계승해 석남사 수행도량을 건립하고 철저한 수행가풍을 만들어 비구니의 출가 정신과 수행정신을 확립했다. 스님은 계율과 정진에 철저한 비구니 수행자상의 모델이 됐다."

일중 스님(동국대 강사)은 '가지산 석남사 인홍 스님의 삶과 사상'을 통해 가지산 석남사의 수행 가풍을 세운 인홍 스님(1908~1997)의 생애와 업적을 살폈다.

일중 스님에 따르면 인홍 스님은 1908년 경북 영일군에서 태어났고 1997년 석남사에서 세납 90세로 열반에 들었다. 1941년 33세에 출가해, 수행자로서의 살아온 것은 57년이다. 출가 이후 인홍 스님은 당대 선지식인 한암 스님과 성철 스님 아래서 수학하며 출가수행자로서의 면모를 갖췄다.

이에 대해 일중 스님은 "인홍 스님은 출가 후 처음 8년간은 한암스님 회상에서 보내고, 성철 스님을 만난 후 8년 간은 제방 선원을 돌며 참선 수행에 매진했다"고 설명했다.

1957년 가시산 석남사로 들어간 인홍 스님은 40년을 주석하며 비구니 회상을 열고 석남사 수행가풍을 확립해갔다. 인홍 스님은 석남사를 이끌어 감에 있어 △참선수행을 실참하는 수행도량 △부처님 정법수행을 계정혜에 두는 점 △선지식을 모셔 계율과 경전 강독을 표방했다.

이를 통해 인홍 스님이 보인 핵심 사상은 △선밀쌍수 △복혜쌍수 △계행과위의 중시로 정리된다는 게 일중 스님의 주장이다.

선밀쌍수는 참선수행을 바탕으로 사찰 일상 기도법으로 능엄주 독송과 대참회를 함께 실천하는 방식이다. 이는 봉암사 수행 결사에서도 성철 스님이 실천했던 방법으로 그대로 인홍 스님의 사상이 돼 석남사에 적용됐다.